

소아기의 집단검진에 대하여

최근에는 비교적 간단하고 약간의 훈련만 받은 사람이라면 행할수 있는 집단검진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일차적인 간단한 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일 경우 다시 이런 어린이들만 전문의들이 자세히 관찰하고 필요한 검사를 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오 창 규

소아기는 출생 후 부터 신체의 모든 조직및 기관이 성장발육을 계속하여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해당하므로 각종 질병의 양상이 성인과는 판이

하게 다른 경우가 많고 성인이 된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수 있는 질환이라도 소아기에는 큰 지장을 일으키지 않거나 발견되지 않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게 된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호흡기및 위장관 계통의 잦은 감염으로 인하여 보호자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상담을 자주 하

게 되나 이 시기가 지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병에 걸리는 빈도도 줄어들고 또 대부분의 질병을 이겨낼수 있는 시기이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각 학교에서는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기위해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계획, 시행하고 있으나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모든 어린이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비교적 간단하고 약간의 훈련만 받은 사람이라면 행할수 있는 집단검진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일차적인 간단한 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일 경우 다



최근에는
소변중의 단백이나
당검사를 쉽게
검사 할 수 있는
시험지가 많이
보급되어
복잡한 검사실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에대한
검사를 할수가 있다.

시 이런 어린이들만 전문의들이 자세히 관찰하고 필요한 검사를 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한다.

이에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야할 몇가지 검사와 이에 관련되는 질병들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결핵반응 검사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상당히 높던 결핵 이환율이 의식주등 생활환경의 향상으로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안식구나 가까이 생활하는 사람들중에 결핵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에 1회정도의 검사를 한후 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 결핵예방 주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결핵에 감염될 기회가 높은 경우에는 더 자주 검사를 시행하거나 환자와의 격리를 취하도록 하며 결핵예방주사 접종 또는 예방적인 화학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2. 소변검사

최근에는 소변중의 단백이나 당검사를 쉽게 검사할수 있는 시험지가 많이 보급되어 복잡한 검사실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에대한 검사를 할수가 있다.

만일 소변중에 단백이 양성으로 나오거나 혈뇨가 발견될 경우는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여 신장계통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변중에 당이 양성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연소형 당뇨병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성인에서 보는 당뇨병과는 원인및 치료면에서 다른 연소형 당뇨병을 가진 소아가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만일 이런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성인에 비해 혼수상태에 잘 빠지게 되고 성인이 된 경우에 이에 대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질환중의 하나이다. 연소형 당뇨병은 소변양이 많아지고 갈증이 심히 나타나며 많은 음식물을 섭취

취하는데도 체중감소등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개는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면 피부, 호흡기등의 감염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3. 대변검사

과거에는 기생충감염율이 소아기에서 아주 높았으나 여러기관의 끈질긴 노력으로 현재는 많은 감소를 보인 부분이나 아직도 매년 정기적인 검사및 구충제의 투약이 필요하다.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 있으면 영양분의 흡수장애를 받는외에 장관벽에 생긴 미세한 상처로부터 생기는 장기적인 혈액의 손실로 인하여 빈혈을 나타내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된다. 또한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경우도 종종있어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4. 혈액검사

외관상으로는 건강하게 보이는 어린이

에서도 혈액검사상 빈혈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게된다. 특히 형제들이 많지 않은 집안에서 편식을 하는 경우에 많이 보일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사를 요하게 된다. 빈혈의 원인으로는 피를 만드는 성분인 철분의 섭취가 부족한 경우, 위장관에서의 흡수가 안되는 경우, 또는 기생충 감염등으로 위장관에서 소량씩 출혈이 계속되어 나타나는 수도 있으므로 이에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장기에 우리몸에서 피가 모자라게 되면 성장에 장애를 줄뿐 아니라 모든일에 의욕을 잃어 학습에도 심한 지장을 받게 된다.

5. 시력검사

어린이들중에는 특별한 원인이없이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런때는 반드시 시력을 측정해 보아야 한다. 또한 시력은 심하게



기생충감염율이 소아기에서 아주 높았으나 여러기관의 끈질긴 노력으로 현재는 많은 감소를 보인 부분이나 아직도 매년 정기적인 검사및 구충제의 투약이 필요하다.

떨어져 있지 않으나 난시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한 자세한 안과적 검사를 하여 필요시 안경등으로 시력을 교정해 주어야 한다.

6. 심장에 대한 검사

최근 심장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약한 심장잡음은 전문의 일지라도 자칫하면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요즈음에는 소아들에서 집단검진을 할 수 있는 심전도가 보급되어 일차적인 검진을 한후 이상을 보이는 경우 정밀검사가 의뢰되어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허약하거나 육체적인 피로가 쉽게 올 경우 스스로 자신의 어린이가 심장이 나쁘다는 속단을 하게 되는 때가 많은데 만일 이렇게 되면 보호자뿐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정신적 충격이 크게 되므로 일차 검진에서 이상을 보였다 할지라도 정밀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자가진단으로 속단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만일 심장병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약물 및 수술요법이 많이 발전되어 대부분의 경우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까운 전문의사와 의논하여 좋은 치료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호흡기 계통의 이상

호흡기 계통, 특히 부비동염(축농증)이나 편도선 및 아데노이드의 비대등이 있을 경우 학업집중도가 떨어지고 두통을 호소하는 때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이비인후과 의사의 자세한 진찰을 받기 전

●

요즈음에는 소아들의
집단검진을 할 수 있는
심전도가 보급되어
일차적인 검진을 한후 이상을
보이는 경우
정밀검사가 의뢰되어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

에는 확인하기가 힘든 때가 많다. 그러므로 다른 검사상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을지는 이 계통의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상기 열거한 경우들에 있어서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지나쳐 버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만일 일반 검사에서 조그만 이상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전문분야 의사선생님들과 의논을 하여 교정을 시켜줌으로서 학교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뿐 아니라 성장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가톨릭의대 소아과 교실·의박)

